

시온 주보

제2544호
2025년 2월 9일(다해)

연중 제5주일

성 베드로

폼페오 바토니
(Pompeo Batoni, 1708-1787)
1740-1743, 캔버스에 유채,
73x60.5cm
바실던 파크, 영국 레딩



입당송 |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 이사 6,1-2ㄱ.3-8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ㄴ.2ㄱㄴ과 3.4-5.7ㄹ-8(◎ 1ㄴ)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1코린 15,1-11<또는 15,3-8.11>

복음환호송 |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 루카 5,1-11

영성체송 |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주님께 사로잡힐 결심



김영훈 베드로 신부 | 일원동성당 부주임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이나 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상대방을 꿈쩍 못 하게 만들만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의 특별한 만남을 전해주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압도된 이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숫가에 있던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많은 군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고기를 잡으라고 이르십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그들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무슨 이유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치고 상심한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기적 앞에서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 많음을 고백하며 떠나달라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사랑을 낚을 것이라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기잡이 기적은 사실 그 결과만 두고 본다면 어부들에겐 대단한 횡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 압도된 이들이 느끼게 된 감정은 ‘놀라움’을 넘어선 ‘두려움’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불신, 의심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피어오른 것은 아니

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압도된 이들의 첫 마음이 두려움이었다면,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의 마음은 예수님께 사로잡힐 결심, 설렘과 안도감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과는 다른,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중 ‘경외심’(두려워함)은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겸손한 마음이며,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께 사로잡힐 결심과 용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마태 22,37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 사로잡힌 삶, 그분과 일치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주님께 사로잡힐 결심을 기쁘게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노련한 갈릴래아의 어부였지만, 오늘 물고기를 낚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름에 한 번 더 수고로운 노동을 합니다. 폼페오 바토니는 하늘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그립니다. 눈빛에서 경외와 동경뿐만 아니라 작은 두려움도 엿보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낚은 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그분께 떠나달라 청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 나라와 기적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막상 마주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나약함과 죄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베드로와 같이 언제나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하느님의 빅 픽처



알베르토 몬디 | 방송인

돌아보니 인생의 절반 가까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반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이탈리아는 낮 12시면 학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주로 축구를 하거나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는데, 특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책으로 접하고 습득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오만하게도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공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책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십대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자신감으로, 혼자 공부할 수 없고 대학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은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은 것이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도저히 혼자 공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는 학문 중에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일어일문학과 대신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 역시 십대 특유의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난 나만의 길을 갈 거야!’라는 독특한 자존감 덕분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당연히 그때까지 전,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지금으로 이끌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아내는 정말 예뻐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 하나하나도 예뻐서 중국 유학이 끝나고 헤어져서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이십대니까 가능한 사랑의 열정으로 아내를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한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말에 “Il Signore ha un disegno su di t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너에 대한 빅 픽처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아내를 만나도록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대니까, 이십대니까’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저에 대해 모든 걸 아시는 하느님께서 아내와 만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신 덕분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남은 저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으셨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저는 당시에는 알 수 없고 훗날에 그 그림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겠지만 어떤 그림이든 하느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그림을 그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글 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컷 묵상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루카 5,4)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 아브라함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사도 바오로는 아브라함을 두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4,18 참조) 희망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느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고, 복을 내리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은 시련으로 가득했고, 하느님의 약속은 거듭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에는 파라오 때문에, 그라르 땅에서는 아비멜렉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은 무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개입으로 사라는 무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스켄에서 베델, 네겝 지방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네겝에서 베델로, 헤브론에서 다시 네겝으로 갔으며, 그라르 땅에서 살다가 브에르 세바로, 다시 헤브론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주민으로 살면서 그가 죽기 전에 소유한 유일한 땅은 사라의 장지로 산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과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이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창세 15,18 참조)은

공허하게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75세에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86세 때였고, 이사악을 얻은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었고, 그 후 그는 크투라에게서 여섯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자녀가 총 8명이니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한결같이 지켜 주시는 성실하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에 힘입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로마 4,21) 하느님의 약속은 사백 년이 지나서야 성취될 것이지만(창세 15,13 참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로마 8,25 참조)

사도 바오로가 말한 대로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로마 8,24) 일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긍정적 표지들이 충분히 많을 때는 굳이 희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할 근거가 없어도 희망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의 어머니입니다. 성실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희망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한 대로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정의를 향해 기울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리스도교에서 ‘죄’란 우선 하느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느님 뜻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짓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이웃에게 죄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지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는 바로 절망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지옥이란 절망 가득한 곳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배신 후 절망했고,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믿는 이들과 함께 머물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결국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마태 12,31-32; 마르 3,28-29; 루카 12,10 참조)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시거

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든 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 마음, 모든 이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단죄하거나, 저 사람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정한다면,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죄가 있지만, 하느님의 용서는 모든 죄에 해당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마태 18,22)하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용서 못 하실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회개’(悔改)라는 단어는 ‘회두’(悔頭), 즉 ‘고개를 돌리다’, ‘하느님께 향하다’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신앙’(믿음)과 동일한 의미이고, 죄의 반대말입니다.

특히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거나 인간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무속은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지만, 신앙은 인간이 들어야 할 말을 해 줍니다. “믿음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이다.”(폴틴 신 주교)



서울 - 인천 - 대구 - 수원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2024년 11월 29일(금)~12월 30일(월)

우리 교회는 직전 WYD 개최국인 포르투갈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청년대회 상징물인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우리 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를 향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기착지는 인천교구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일주일간 순례했는데, 많은 교구민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천교구청 내 성모 순례지에 모셔 인천교구 순례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대구 대교구로 전달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12월 11~17일, 7

일 동안 대구 신자들이 봉헌하는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11일에 장신호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된 환영 예식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교구청 성모당에서 봉헌된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대안성당에서 봉헌된 2024년 청년청소년국 봉사자의 날 송년 감사 미사(14일)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12월 17~30일, 14일 동안 수원교구를 순례했습니다. 12월 17일 젊은이 대표들의 주도로 환영 예식을 진행했고, 이어서

주교님들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수원화성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수원가톨릭 대학교로 옮겨 젊은이들을 위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을 비롯한 23곳의 다양한 순례지를 순회하였으며, 2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발자취가 담긴 은이 성지에서 순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준비 과정 봉사자들이 양성 첫 단계를 마치며 수료 감사 미사를 봉헌!

2024년 12월 13일(금)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과정 봉사자들이 양성 과정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며, 수료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감사 미사는 이경상 주교님과 각 조의 동반 사제들이 함께 집전 하셨습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봉사자들은 200여 명으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2027 서울 WYD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미사 중 봉사자들은 '2027 서울 세

계청년대회 봉사자 봉헌문'을 함께 낭독하고, 이 주교님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봉사자와 모임 동반자의 소감 발표 시간도 있었습니다. 소감을 발표한 이들은 모두, 양성 과정에서 사용했던 '성령 안에서의 대화' 나눔 방식을 통해 진심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료 미사를 통해 파견된 봉사자들은 총 14

개의 세부팀으로 나누어져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2027 서울 WYD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봉사자들이 그 여정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오미라 소피아 |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하느님을 처음으로 찾았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시험 결과를 받고 누구에게든 위로받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른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당에 가려니, 문이 잠겨 있을 것만 같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 위로를 청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하느님께 기대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하시겠지.’라는 생각도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었고, 온몸이 근육통으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취업 준비를 핑계로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할 짐을 가득 안고 나선 순례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걸으며 입에서 새어 나오는 기도는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뿐이었습니다. 다행히 탈 없이 잘 걸었고 돌아와 그때를 떠올려보니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기도든 다 듣고 계시는데 저는 그동안 해결책만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연한 기회에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창세기 수료를 위해 들어간 연수에서 저는 또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제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때 받은 엄청난 사랑이 계속해서 청년성서모임에서 그룹 봉사와 연수 봉사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룹 봉사와 연수 봉사를 하면서 만난 하느님은 저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찬양을 잘하는 것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 제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 노력으로는 부족하니 당신께 더 매달리도록 초대하십니다. 봉사는 사람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는 채워주시는 하느님이 좋습니다.

저는 가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만난 경험들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적어도 저 자신이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저는 옆에 있는 그분을 붙잡았고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즐거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찰 때도 많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이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감사한 일을 하나라도 찾으려 마음을 다잡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느님께서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의 사소한 일상에서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일상에서든 봉사 활동에서든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곁에 계신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2월 11일(화)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 교황님의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4년 2월 12일 김선영 요셉 신부(76세)
- 1997년 2월 15일 이삼복 요한 신부(83세)
-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87세)
- 2016년 2월 11일 강대호 스테파노 신부(55세)

2025년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2025년 2월 인사 발령으로 윤운상 요셉, 김대용 사도 요한 사제 두 분을 대만에, 그리고 오병웅 베드로 사제를 칠레에 해외 선교 사제로 파견합니다. 이에 교구장님의 주례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봉헌하며, 교구 내 외국인 선교사를 초대하여 '선교사의 희년'을 거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424 해외선교봉사국
 때, 곳: 2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교구청 알림

2025년 서울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 모집

모집대상: 스카우트 대원 활동에 관심있는 학생(6~18세)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 문의: 02)762-9857
 신청방법: <https://naver.me/G4Wp1fqS>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월 25일(화) 23시30분까지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3월 5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 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2월 13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집전: 임창재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피장: 11월 12일~21일(피장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월 생명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1) 2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2월 10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희망으로 가는 길 (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때: 2월 11일(화) 13시30분~16시30분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2월 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 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사제: 안동익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프로그램: 독서대면·비대면, 아트테라피, 마음명상, 마음돌봄, 컬러링, 글쓰기 등 / 신청기한: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02-727-2495)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 예정)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2월 10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중고등 가톨릭학생회 나눔

매월 N번째 토요일 회화동에서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
 홈페이지: www.kyccs.or.kr/cell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전달하기

굿뉴스 녹음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전례 독서 낭독 교육
 대상: 본당 전례단 단원 및 낭독에 관심 있는 교우
 때: 3월 10일부터 매주(월) 오전 10시(2시간, 4주)
 곳: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문의: 02)2290-3138
 접수방법: 굿뉴스(catholic.or.kr) 공지사항 참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1) 제52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 제28회 가톨릭 미술상 수상작가전: 전관
 전시일정: 2월 14일(금)~23일(주일)
 2) 2025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접수기간: 3월 4일(화)~14일(금)
 굿뉴스 및 인스타그램@gallery1898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1) 제7기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곳: 2월 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본당 사제·수도자·사목위원 생태영성교육
 대상: 본당 사제·수도자·사목위원 및 관심자
 내용: "기후위기에서 기후 회복으로"(조천호 박사, 전국법기상과학원 원장, 대기과학자) / 회칙 「잔미방오」서와 우리의 실천(이재돈 신부,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3월 12일(수) 1회차 14시~16시·2회차 19시~21시 중 선택,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신청방법: 본당 별 취합한 교육신청자 명단은 환경사목위원회(ecocatholic@hanmail.net) 혹은 팩스(02-727-2271)로 접수 / 회비 없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 3일(월)~25일(화) / 3개월 수업(12월~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분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2월 24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한수현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민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5년 전반기 강좌 안내

접수기간: 2월 3일(월)~3월 3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 10일~6월 16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10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 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입문), 직장인(1권) 성서못자리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5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회비(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권·동부 화요일)
 수강기간: 3월 4일~6월 10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료 포함)

민족화해위원회

1) 화해·평화학교 수강생 모집
 때: 3월 19일~5월 14일 매주(수) 19시(총 8주)
 곳: 영성센터 203호(선착순 50명)
 회비: 7만원(평화기행별도)
 문의: 02)753-0815, 010-4682-2412(문자)

1강	3월 19일	[평화신학] 평화와 신학이 만나다	정수용 신부
2강	3월 26일	[북한정세] 북한, 아는 만큼 이해하기	이정철 교수
3강	4월 2일	[분단문화] 갈라진 한반도, 갈라진 마음	김성경 교수
선택	4월 11일~12일	[평화기행] 길에서 만나는 한반도 평화	정수용 신부
4강	4월 16일	[국제정세] 세계는 전쟁 중, 한반도 평화는?	백준기 교수
5강	4월 23일	[문화교류] 남과북,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박재리 교수
6강	4월 30일	[북한교회] 평양에는 성당이 몇 개 있나?	김연수 신부
7강	5월 7일	[종교교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장국선 신부
8강	5월 14일	수료 미사	.

2) 1452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2월 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돋움당': 함흥교구 나진웅기 본당 / 문의: 02)727-2420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강사: 배광하 신부 / 담당: 김종국 신부
 때: 매주(화) 2월 11일 12시~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들담 수녀회 사순묵상 기도모임(The 비움)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때, 곳: 3월 5일부터 매주(수) 19시30분~ 20시30분(총 7회), 노들담교육관(북촌로 54) / 문의: 010-3930-6730

덕산순교성지와 해미압송로(도보순례 12km)

때, 곳: 4월 12일(토)~13일(주일) 1일차 배나드리-덕산-한티고개(미사)·2일차 해미읍성-국제성지(미사)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010-3807-1784 라이시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주·자·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주)·3월 29일~31일·4월 1일~3일·4월 5일~8일(주)·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주)·5월 4일~6일·5월 9일~11일·5월 13일~15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60, 010-4154-0885

2박3일	2월 14일(금)~16일(주일), 3월 1일(토)~3일(월), 5월 23일(금)~25일(주일), 6월 13일(금)~15일(주일)
8박9일	8월 6일(수)~14일(목) 40일 6월 21일(토)~7월 30일(수)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2월 19일 / 회비: 3만원	정규한 신부
‘영신수련 맛들이기’ 기도실습 10주 강좌	3월 6일(목) 개강 13시30분~16시	
성음악과 함께하는 영신수련	3월~7월 둘째주(토) 14시~16시 개강: 3월 8일 / 회비: 5회 10만원	이보나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2월 28일~3월 2일, 3월 21일~2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3월 1일~2일
사순 1일 피정	3월 6일(목), 3월 7일(금)
첫번째 기도학교	3월 10일(월) 개강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3월 18일~27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터)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치유 피정(김동주 치유담당 봉사자)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2월 15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진홍장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양종석 신부(의정부교구 호평성당 주임)
 때, 곳: 2월 19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4월 23일~25일·5월 21일~23일·6월 9일~11일·9월 18일~20일·10월 30일~11월 1일·11월 11일~13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2월 22일~24일(한라산), 3월 17일~19일, 3월 22일~24일, 3월 28일~30일, 4월 2일~4일(주), 4월 7일~9일, 4월 22일~24일, 5월 10일~12일, 5월 15일~17일, 5월 20일~2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 3월 9일~12일, 4월 12일~15일, 4월 27일~30일, 5월 4일~7일, 5월 26일~29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미사와 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14동작지구 오르간 교육)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4964-527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주간전례 음악 특강 / 문의: 010-9842-8818

강사: 이호중 교수 / 대상: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때, 곳: 2월 15일(토) 10시~12시,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51기 1단계 개강

때: 3월 10일(월) 10시·3월 19일(수) 19시
 곳: 가톨릭회관 527호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작은형제회 청년성서모임 불학기 모임

대상: 창세기~사도행전 봉사자·그룹원
 모집: 1월 20일~2월 16일 / 문의: 010-3525-1328
 접수: 네이버카페·인스타 ‘정동청년성서모임’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3월 6일 개강,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명동대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성서사십주간 모집

강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
 때: 3월 4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40주간)
 회비: 8만원 / 문의: 010-2337-4547 (문자)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6일 불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명동 3545+ 청년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모집기간: 2월 2일~23일 / 대상: 35세~45세(가톨릭 신자)
 접수 방법: cafe.naver.com/ourbible3545
 문의: 010-9047-5773 (문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생활성가 반주법 강좌

때, 곳: 목요일반 매주(목) 19시~21시·금요일반 매주(금) 10시~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강의실
 회비: 20만원(회비 기준) / 유튜브: 한샘생활성가
 문의(접수): 010-7244-1312 (강사에게 직접 연락)

목요 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 문의(접수): 02)2258-8983

주제: 요한복음으로 묵상기도하기
 지도: 정시몬 신부(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주최)
 때: 2월 27일 개강, 오전반 매주(목) 11시·저녁반 19시 30분, 서초평화빌딩 2층(반포대로22)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문의: 02)3276-7799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교리·신학 통합강좌와 영적수련) / 2월 28일까지 접수
 때, 곳: 3월 6일 개강, 첫째·셋째 격주(목) 19시~21시(8강), 비대면 온라인 / 담당: 권효섭 신부

이콘연구소 23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65세 미만
 실기시험: 2월 22일(토)·2월 24일(월) 10시30분
 개강: 3월 3일(월) / 지도: 장궁선 신부
 곳: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모집: 3월 31일(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성서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포럼

성서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세상을 렉시오 디비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공미: 이대현(영화평론가, 김혜원(피엠퍼츠 대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blemove.com 가톨릭성서모임) 참조 / 문의: 02)824-4363 가톨릭성서모임

전진상 영성센터 ‘자아의 통합과 영성’ 불학기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영성의 통합을 돕는 심리영성 통합강의(대면 강의·비대면 강의) / www.jjscen.or.kr
 강의 후 소집단 경험훈련(기초훈련 또는 심화훈련 선택 가능)
 때: 3월 6일~6월 19일 매주(목) 10시~12시(총14주)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문의: 02)726-0700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
 러는 프로그램 / 문의: 010-7451-9707
 대상: 60세 이상 / 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7일~26일·4월 21일~30일·5월 12일
 ~21일·6월 9일~18일(10일), 강원도 홍천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1) 새로나는 성경 공부 밴드수업 학생 모집 / 02)944-0969
 과목: 모세오경 / 회비: 9만원(교재 1권 포함)
 개강: 3월 7일(금) 10시~12시, 라이브(11주)
 2)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성경 공부
 2월 28일까지 접수 / 문의: 02)944-0819~23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불학기 회원 모집

곳: 인사동 / 다례와 전통 예절 교육
 문의: 010-3707-5712, 010-5246-9906

월요 오전반	3월 10일부터 13주간 10시30분~12시30분
월요 오후반	3월 10일부터 13주간 14시~16시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월 11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0시30분~15시40분(2년, 주5일)	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 (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35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모집

대상: 가르멜 기도를 배우고 살고 싶은 교우
 주처: 전교가르멜수녀회 / 2년 과정

매월 1·3번째	(화) 대면반 10시~12시30분	문의: 02)737-7764,
	(화) Zoom반 20시~22시	010-5969-2989
	(수) Zoom반 20시~22시	문의: 02)737-7764,
	(목) 대면반 10시~12시30분	010-4495-7764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및 비대면(Zoom·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현장 강의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서명원 신부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발타사르와 슈파이어의 공동사명	김관희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영성과 철학상담 1단계, 세상 과 마주하기-삶의 위태로운 순간, 철학에 귀 기울이다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전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명동성당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6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 분야: 병원 안내 / 모집: 2월 21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2

미사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2월 17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
 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세계병자의 날 미사

때, 곳: 2월 11일(화) 오후 3시,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콘솔레이션 홀(B3) / 문의: 02)3147-2402
 미사 중 성수 축복과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2월 12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
 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일 세배제(토) 2월 15일·3월 15일·4월 19일 15시
 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성가복지병원 직원·봉사자 모집 / 문의: 02)940-1503
 간호사 0명, 조리사 0명, 피부과 봉사의료진 모집

가톨릭대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문의: 02)740-9707~8

꾸르실로 화관 주방 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대상: 경험자 우대, 세례받은 지 1년 이상된 교우
 1명(계약직)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2월 24일(월)까지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직원 모집(경력)

분야: 영상PD, 라디오PD, 편집기자, 기자, OTT
 운영, 카메라, 아카이브, 인사 / 문의: 02)2270-2225
 서류 접수: 2월 9일(주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페이지(cpbc.co.kr) 참조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위원회 홍보 및 교육 담
 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후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지원 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월 23일
 (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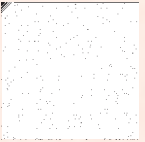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마케팅	도서 및 콘텐츠 기획·마케팅
편집국	전문 편집, 복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마지막주(토) 14시~18시	수도원(서울)	010-9528-2625 최호정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2월 15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2월 21일(금)~23일(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종로구 평창11길 74)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15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선교 책자 · 리플렛 안내

우리 교구는 선교 활동을 위한 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이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출판사 인터넷 서점(www.catholicbook.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선교 책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비신자용 선교 책자이다. 내용을 쉽게 풀어내, 누구에게나 선교용으로 쓸 수 있다. (20쪽, 400원)



일반 선교 리플렛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 신앙생활, 한국 천주교회사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선교 리플렛이다. 다양한 사진을 삽입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8쪽, 200원)



쉬는 교우 선교 책자

나에게 오너라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쉬는 교우를 위한 선교 책자이다. 신앙생활은 왜 성당에서 해야 하는지, 고통 중에 하느님은 어디 계신지,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쉬는 교우에게 도움 되는 내용을 담았다. (20쪽, 200원)



젊은이 선교 리플렛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 신앙생활, 한국 천주교회사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선교 리플렛이다. 천사와 예수님 캐릭터를 삽입해 젊은이들에게 선교하기에 적합하다. (8쪽, 200원)



어르신 선교 책자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 노년의 신앙생활 등 어르신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선교 책자이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 (20쪽, 400원)



외국인 선교 책자

Thank you, I love you

일반 선교 책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의 외국어판 선교 책자이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쪽, 200원)